

윤 대통령 당선 1주년... '자유·연대' 키워드 2년차 국정 속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민생 행보
'친윤 체제' 당 통해 개혁·외교 주력
한미일 삼각공조 탄력 붙을 듯
시민사회 '검찰 정권' 비판 등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당선 1주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기념 행사나 메시지 없이 울산 석유화학시설 기공식에 참석하는 지역 민생행보에 집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행사 자체가 대선 1주년 메시지"라며 "민생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자축하는 것보다,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해 지난 1년을 복기하며 민생을 돌보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자유'와 '연대'를 핵심 가치로 앞세워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이어갔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민간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지원을 주된해 왔다. 이를 통해 수출을 다시 일으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교육·연금을 필두로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 이해관계가 얽힌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철학은 대외 정책에도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 특히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 판단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 하겠다는 해법을 최근 제시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내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가시화하고 '4월 국빈 방미'도 확정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도 더 탄력이 붙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 기조는 전날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여당 전당대회 축사에서도 재확인됐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은 1만 명 당원 앞에서 작년 대선을 상기하며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 격려하고 뛰고 또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 왔다"며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 목소리, 강력한 국가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여당에도 '친윤 체제'를 구축하면서 윤 대통령은 개혁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마무리하며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개혁 방향과 속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만만치 않은 숙제로 보인다.

'검사 정권'이라는 비판을 불러온 인재 풀 한계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아들의 학교폭력에 따른 검사 출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상당한 데다, 검사 출신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상근 전문위원에 선임된 데 대한 반발 여론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를 방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수출차량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16~17일 첫 방일...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수출규제·지소미아 논의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을 알리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방일이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윤 대통령 방일은 정부가 지난 6일 양국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일본 정부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 발표를 통해 호응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윤 대통령 방일은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마쓰노 장관은 전했다.

대통령 방문은 형식상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나뉜다. 축박한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기대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한 이후 4개월

만에 마주앉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갈등에서 파생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방면에서 양국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울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출규제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안다"며 "지소미아 역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추가로 나오는 대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계획 외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기현 "미래 세대 위해 한일관계 새로 쓰여야"

국힘 새 지도부 첫 최고위 회의

대표 비서실장 초선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9일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관계 미래는 새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본이 우리에게 남긴 아픔과 상처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 대국인 만큼, 글로벌 시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당리당락에만 매달리는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답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더욱 꼬이게 한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 정권은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락과 과거에만 연연하는 좁쌀 같은 근시안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 회의장에는 '우리의 대답은 오직 민생입니다'라는 글귀가 담긴 배정판이 세워졌다.

한편 김 신임 당 대표는 대표 비서실장에 초선의 구자근 의원을 내정했다.

김 대표 측은 선임 배경에 대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TK(대구·경북) 표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구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짙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당직 인선에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진흙탕 전대' 후유증...투표 조작설까지

친윤 지도부 친준석계 맹공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공식 임기를 시작한 9일 전당대회 결과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으로 나뉘어 당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네거티브는 물론 수사 의뢰·고발까지 나온 '진흙탕 전대'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친윤계가 장악한 새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비윤

계 수장 격인 이준석 전 대표와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친이준석계 주자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현상을 기대하고 30대·0선을 당 대표로 뽑아줬는데, 그게 마치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라고 착각을 하고 (당을) 쥐고 흔들었다"고 이전 대표를 비판했다.

비윤계도 반격했다. 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긴 뒤 "누군가는 권력에 기생해서 한 시절 감투를 얻으면 그만이었지

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했다"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 때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당 대표에 출마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측에서는 투표 조작설이 나왔다.

황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에는 황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지난 4~7일 시행된 전당대회 투표 참관 결과, 5초 간격으로 집계되는 실시간 투표인 수가 10명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등 이 유를 들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